

언론을 바꾸는 시민의 제안
언론노조 시민미디어랩
가이드라인

2023. 5.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시민미디어랩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시민을 정책의 생산자로 모시는 협력과 연대의 장입니다.
- 언론노조의 활동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과 연대하는 미디어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언론노조는 지난 해 시민미디어랩을 통해 7개의 시민 소모임을 지원하고, 시민의 제안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올해도 ‘언론을 바꾸는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언론미디어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구성된 소모임
- 인원은 3인 이상 ~ 5인 내외로 구성

○ 지원내용

- 활동 기획을 공모하여 소모임 선발 (총 5~7개 조)
- 정책제안을 위한 소모임 활동비 지원 (소모임 당 1백만 원)

- 언론미디어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소모임의 최종제안을 평가하여 다음 해 언론노조 활동 및 정책사업에 반영
- 언론노조 민주언론상 심사 참여
- 기타 소모임 활동 지원

○ 지원분야 : 언론의 신뢰를 높이고 언론·미디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제

- 지정주제 : 노동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자유주제
 - : 언론의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모임에서 기획한 활동
 - : 지역모임 또는 지역 관련 주제에 가산점 부여
 - 활동내용
 - : 자유형식 (스터디, 강연회, 책읽기모임, 교육활동, 캠페인 등)
 - 단, 최종결과는 언론노조 활동 및 정책 사업 제안으로 제출
 - : 결과발표는 ppt를 권장. 그 외에 문서, 동영상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가능

(참고) 1기 시민미디어랩 주제 사례

| | 소모임명 | 주제 |
|---|----------|----------------------------|
| 1 | 뉴스클리너 |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
| 2 | 도꼬마리친구들 |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언론의 자세 |
| 3 | 생각나무 | 뉴스관련등급제 :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뉴스 |
| 4 | 정치하는 엄마들 | 혐오와 차별은 웃음거리가 아니다 |
| 5 | 지방시 | 지역 언론이 건강해야 언론이 산다 |
| 6 | 퀴어저널스터디 | 성소수자 보도에 관한 방향성 제시 |
| 7 | 패치워커 | 언론계 성평등 보도준칙의 실효성 확보 |

○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8일(월)부터 5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언론시민미디어랩 공고 페이지(<https://citizenmedialab.notion.site/2-ded20772e44644e48ce50aedee21e347>)에서 지원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접수(mediareform0827@naver.com)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 (붙임 신청서류 3종 포함)
※ 접수 시, 이메일 제목에 “[지원서]” 기입 후 제출
- 문의 : 언론개혁시민연대 (주관 단체 사무처 : 02-732-7077)

○ 공모결과 발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3시
* 선정된 소모임 팀장에게 개별 연락

3. 주요 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신청 | 2023. 5. 8.(월) ~ 5. 26(금) | |
| 심사 | 2023. 5. 30.(화) | |
| 선정발표 | 2023. 5. 31.(수) | |
| 사업설명회 및 OT | 2023. 6. 7.(수) | |
| 워크숍 | 2023. 7. 5.(수) | ※ 일정 변동 가능 |
| 민주언론상 심사참여 | 2023. 11월 中 | |
| 결과제출 | 2023. 12. 8.(금) | |
| 시민제안대회 (결과 발표회) | 2023. 12. 13.(수) | |

4. 선정 심사

○ 기본방침

- 5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모임 선정
- 서류심사
- 주제의 필요성, 활동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소모임의 인적구성, 활동의지, 활동계획, 추진방법 등을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제출

사업 설명 및 활동 가이드라인

1. 소모임 구성 및 운영

- 소모임별로 1명을 팀장으로 선출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민주적으로 운영합니다.
- 소모임 구성원은 최소 3명 이상이 돼야 하며 5인 내외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5인 초과도 가능)
- 참여의무
 - 모든 참가자들은 소모임 활동과 주요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 모든 참가자들은 소모임 회의(3회), 사업설명회 및 OT(6.7)와 시민제안대회(12.13)에 참석해야 합니다. (필수)
 - 위 회의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수료증을 드립니다.

2. 지원금 및 지원내용

- 지원금
 - 지급 : 지원금(총100만원)은 2회 분할 지급합니다. (각50만원)
 - 1차 : 사업설명회 및 OT 후

- 2차 : 9월초 예정

-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잔액을 0원으로 하여 사용하길 권고합니다.

- 정산 : 지원금 사용내역은 별도의 증빙을 요하지 않습니다.
- 단, 각 조는 지원금을 사용한 모임(회의)의 사진 및 일시, 장소, 간략한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3회)

- 환수 : 지원철회, 중도포기, 결과 미제출, 참석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언론미디어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언론학자, 기자, 시민언론단체 활동가 5인 내외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자문단은 공모신청서를 심사해 소모임을 선정하고, 활동계획서를 최종실행계획서로 수정하는 작업을 자문하며, 시민제안대회에 함께 참여합니다.

- 언론노조 활동과 정책사업에 반영 : 소모임이 최종 제안한 내용을 평가하여 다음 해 언론노조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 민주언론상 심사 참여 : 언론노조는 매년 언론 민주화에 기여한 단체를 선정하여 <민주언론상>을 수여합니다. 시상부문은 '민주언론상'을 본상으로, 보도부문 특별상과 사진·영상부문 특별상, 활동부문 특별상으로 구성됩니다. 소모임별로 공모작을 심사하여 부문별 수상작을 추천하고, 시민미디어랩 참가자 가운데 1인이 <민주언론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결과를 반영합니다.

제32회 민주언론상 심사평 中

“심사 과정도 여느 해와 달랐습니다. 우선, 역대 처음으로 시민들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언론·미디어 운동-시민미디어랩’을 운영해왔습니다. 시민미디어랩에는 각자 관심사에 맞춰 언론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여러 소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스물다섯 편의 후보작을 읽고 평가한 뒤, 팀별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 대표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시민들의 평가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 기타 소모임 활동 지원 협력 : 언론노조와 언론연대는 지원금 외에도 소모임 주제와 관련한 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강연자 섭외, 행사개최, 전문가 자문 등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례 : 소모임 주최 지역공동체 행사를 공동개최



3. 지원분야

- **지정주제란?** 언론노조가 한해 사업과제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듣고자 제안하는 주제입니다.

- 올해의 지정주제는 <노동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최근 들어 노동보도의 양적,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을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언론의 이런 시선은 편향적인 보도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계의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자유주제란?** 언론의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모임에서 선정한 주제를 말합니다.

- 지역언론의 발전과 지역성 보장을 위해 선정심사 시 지역모임 또는 지역 관련 주제를 다루는 소모임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활동내용 :** 언론을 주제로 하는 스터디, 연속강연회, 지역캠페인, 연구조사, 인터뷰, 교육프로그램 등 활동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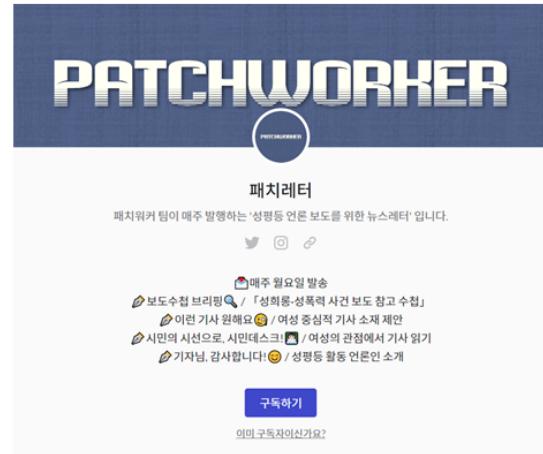
- 단, 최종결과는 언론노조에 활동 및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활동 사례 : 뉴스레터 발행

Part 2 정기 뉴스레터 발행

구성

1. 보도수첩 브리핑
2. 이런 기사 원해요
3. 시민의 시선으로, 시민데스크!
4. 기자님, 감사합니다!



활동 사례 : 다양한 지역활동

함께 공부하고
- 책모임 2회
- 북토크 1회

함께 이야기하고
- 간담회 1회
- 회의 2회

함께 고민하고
- 설문조사 진행

4. 활동계획 변경

- 활동계획 변경은 최종발표 100일 전까지만 가능합니다.(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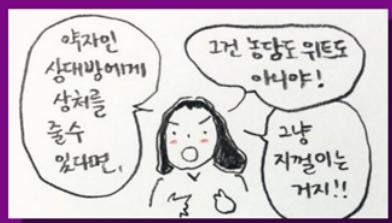
- 보고 및 협의 필수

5. 결과제출 및 시민제안대회

- 시민제안이란? 소모임이 언론노조에게 제안하는 활동과 정책을 말합니다.

제안 예시

정치하는엄마들은 언론노조에
제언내용을 포괄한
<미디어를 위한 차별, 혐오표현 사례와 예방 가이드>
발간을 제안합니다.



<편지이씨봉> 정유진

제안 예시

04 | 결론

우리는 언론노조에 요구합니다.

하나. 언론노조 성평위 <성평등 보도 가이드> 재정비



- 결과 제출 방식 : 결과발표는 ppt를 권장하지만 그 외에 문서, 동영상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결과제출 : 12월 8일(금)까지
- 결과발표 : 12월 13일(수)

6. 결과평가

- 결과평가 : 모든 참가자와 자문단, 운영팀이 시민제안대회에 참석해 결과발표를 듣고, 함께 토론하고, 평가합니다.
- 운영평가 : 시민제안대회 이후 소모임별로 시민미디어랩 사업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7. 그 외 주요일정 소개

○ 사업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 시민미디어랩 사업의 목적과 개요, 수행방법을 설명합니다.
- 조별로 소모임 구성원을 소개하고, 활동계획을 발표합니다.
-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전문가 자문단을 소개합니다.
- 모든 참가자들이 소모임별로 발표한 활동계획을 최종실행계획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한 토론을 나눕니다.

○ 워크숍

- 언론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간담회 등 현직 언론인과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 참가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한 멤버십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주최·주관단체 소개

1. 주최단체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의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의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업별노조로 지난 2000년 11월 24일 창립됐습니다.

언론노조는 매체산업 종사자들의 임금·근로조건의 개선과 향상, 고용안정을 위해 투쟁하며 편집·편성권 독립, 소유지분 분산, 언론의 공공성 확보 등 언론개혁을 위한 지속적 사업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론인 자정선언과 언론인 윤리확립을 위한 실천요강을 제정하고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사합의의 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사업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노조는 민주언론실천위원회를 통해 편집·편성권 독립과 민주언론 실천을 위해 활동합니다.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언론을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정식으로 출범한 성평등위원회는 언론사 내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사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이와 함께 언론사가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보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보도 가이드라인 제정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언론노조 창립 기념일에는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프로그램이나 기사를 선정해 민주언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국제단체인 IFU(국제기자노조연맹)와 UNI(국제노조네트워크) 정식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언론노조는 언론중재법 개정 대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TBS 조례폐지 대응,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건설 등 민간자본의 신문사 인수 조건 강화, 지방선거 정책협약 추진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법안 개정 추진, YTN 민영화 대응, 포털사업자와의 상설 협의체 구성, 저널리즘 사회적 책임 강화 사업과 더불어 시민미디어랩 1기에서 제안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 주관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98년 8월 27일 “국민의 힘으로 진정한 언론의 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서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언론연대는 창립과 함께 통합방송법 제정 및 정간법 개정에 있어서 ‘수용자 권리’ 향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언론연대는 여러 국면에서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2006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시청각공대위에 결합했고,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 행동, 2008)을 결성해 제도언론 중심을 넘어 독립·대안·지역 미디어 운동, 정보인권운동과 관계 맺으며 미디어 운동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언론연대는 그동안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투쟁을 함께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저지 투쟁을 시작으로 YTN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고, KBS 정연주 사장 부당 해임과 낙하산 사장임명 반대, MBC 장악 저지 투쟁에 연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있어서 심사자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심사 등의 문제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 당시에는 광화문 촛불에 결합하며 언론부역자 청산, 삼성(재벌)게이트, 문화예술인 검열을 규탄했으며, 김영한 비망록 분석을 통해 미디어 운동의 의제를 확장시켜왔습니다.

언론연대는 창립 20주년이던 2018년, ‘방송정상화’에 머물던 언론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자 여러 차례 내 외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페미니즘’, ‘인권’, ‘노동’, ‘시민참여’, ‘지역’을 미디어가 실현해야할 가치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미디어 법 제도 및 방송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연대는 언론의 취재·보도를 위축시킨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 비판(MBC 전용기 탑승 불허 및 한겨레 기자 형사 고소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제한 등 규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언론보도로 인한 소수자 피해 대응, △방송 비정규직 사태 대응(KBS <미남당> 스태프 해고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정책활동으로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한 환경(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자율 미디어 콘텐츠 및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중국을 올바로 보기 위한 팩트체크 방법론 연구 등), △공익적 저널리즘 시스템 구축(어드레서블 TV 광고의 시사점과 이용자 정책 과제)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도 인권관점에서의 코로나19 대응, 방송 비정규직 운동,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위한 연대에 결합하고 있습니

다.

언론연대는 2023년 올해에는 △미디어 개혁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 △공영언론과 미디어 규제 기관의 독립성 보호, △언론 미디어의 자율 규제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데이터 기반 TV광고 규제 방안 마련, △저널리즘 비평, △뉴스 플랫폼 책임성 강화, △시민소통 사업 확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미디어랩 2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불만들이 언론개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